

나주 일자리 시책 추진 힘 받았다

일자리대상 장관상 수상...인재육성 성과 호평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원스톱 취업지원 탄력

나주시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9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전남도 투자유치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일자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과기부장관상 수상 등 굵직한 성과를 일궈왔던 나주시는 이번 장관상 수상에 힘입어 일자리 시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에너지밸리활성화에 따른 기업유치·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온 결과 민선 6기 출범 당시 설정했던 기업유치 목표의 120%에 해당하는 360개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2018년 연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

용률이 2.8% 상승하고 취업자 4,6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542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한전공대 유치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비 공모사업 다수 선정 ▲청년 창업물 조성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선정 ▲버스운전자 및 배전기능 인재양성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비롯해 복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접 일자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 필수인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의 장기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지난 해 하반기 나주교통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나주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나주시 제공

이를 통해 올해 나주시 관내 버스노선 개편과 주52시간 근무제 여파로 촉발됐던 시내버스 파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행정과 업체 간 모범 협력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강인규 시장은 "지역경제와 에너지 밸리를 선도해나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일자리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온 뜻깊은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호남권 일자리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김산 무안 군수가 관내 구아바 스마트팜 재배농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김산 무안 군수 스마트팜 농가 방문

구아바·블루베리 재배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격려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소통에 따른 의견들을 농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선도농가들을 현장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김산 군수는 올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한 일로읍 최희심 구아바 재배농가를 방문해 스마트 시설 및 재배현장을 둘러보고 재배경험과 판로확보 및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일로읍 김용남 블루베리 재배농가

를 찾아 스마트팜 이용 및 농업경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참석자 20여명의 블루베리 작목반 회원들과도 첫 수확한 블루베리를 시식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남씨는 "올해 군으로부터 '점단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각종 환경센서 및 제어 프로그램, 관비기 및 관수시설 등 복합환경제어 스마트팜을 설치해 농장관리 편리성 뿐 아니라 정밀 비배관리를 통한 블루베리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함을 표시했다.

김 군수는 "선심성·홍보성 지원이 아닌 군 실정에 맞게 또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계획이며, 스마트팜은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전부터 필요한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다"며 "스마트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시설원에 스마트팜 설치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노지 양파 스마트팜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및 군비 6억원을 투입해 21농가 32ha에 지원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담양 체납액 징수 보고회 예금·부동산 압류 등 전개

담양군은 최근 실과소 및 각 읍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7억여원의 56%인 9억5,000여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2억5,000여만원의 30%인 3억7,6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지서 발송과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해서 납부를 미루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부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흥 국비예산 확보 총력전

국도 23호선 시설개량 사업 등 (KTX) 개통과 함께 광주-완도(강진)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유입인구 및 교통량에 대비해 장흥군은 간선도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황주홍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 군수는 ▲영암 금정IC~장흥 유치간 국도23호선 시설개량사업 ▲로스타운 한옥숙박관광체험단지 조성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영암 금정IC~장흥 유치간 국도23호선 시설개량사업은 국비 470억원이 소요되는 간선도로 확충사업이다. 호남 고속철



정중순 장흥군수는 최근 황주홍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나주시의원, 타인 정보유출 의혹 논란

시 용역 연구진 신상 정보 유출로 고소당해

나주시의 한 기초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지역민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용역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나주 지역사회에 따르면 K모 의원은 나주시와 동시대 산학협력단(이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나주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용역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진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백 모씨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로 K 모 의원을 나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백 모씨는 "지난 1월 경 나주 스마트생태 문화도시 추진센터에서 연구보고서 작성 의뢰를 받아 다른데 쓰려고 작성한 이력서를 보내줬는데 K 모 의원이 빗발침(빛가람발전현의회) 등 10여개 밴드에 공개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 모 의원은 "지금 소송중이니 할 말이 없으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나주시는 '의원 현안 정보 요구'에 자료 활용 목적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제공, 지자체 정보보안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의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제공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에서는 자료 제공에 신중과 보안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공무원만 참고인 조사를 했으며, 아직 K 모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 사회적 가치 실현 행정혁신 결의

함평군은 최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3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적극행정 추진 ▲공공서비스 혁신 ▲청렴행정 등의 행정혁신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신뢰받는 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진행된 정부혁신강의에서는 대통령 전담통역관, 외교부·주한미대사관 외교관 등을 역임한 김민 대일리플리 정책연구소장을 초청, '혁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약 90분간 특강을 실시했다. /함평=윤예준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무안 영양플러스 조리교실 운영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보건소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입산부 및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조리교실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영양플러스 양양교

실 운영을 통해 입산부 및 영유아 가족들에게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가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식습관 형성 및 영양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성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장성군은 최근 균형 상황실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유대적 군수와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침체를 생업 현장

에서 피부로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성=전일용 기자



담양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이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건강 증진실에서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적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 순환식 그룹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제 순환식 운동은 이번 운동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순환하며 운동을 수행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담양=장동원 기자